

1교시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①	2	②	3	②	4	③	5	③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①	20	②
21	①	22	④	23	④	24	①	25	①
26	①	27	⑤	28	④	29	②	30	⑤
31	②	32	③	33	②	34	②	35	⑤
36	③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④	43	②	44	③	45	④
46	⑤	47	③	48	③	49	⑤	50	②

[듣 기]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한 젊은이가 산골짜기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도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자, 농기구를 던지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은 모두 풍년이 드는데 내 땅만 유독 수확이 적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자 같은 동네에 살던 노인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찌 자네는 자연의 이치는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는가? 땅마다 토질이 달라서 어떤 땅은 비옥하고 어떤 땅은 척박하다네. 같은 고을의 땅이라도 높은 곳에는 기장을 심는 것이 마땅하고, 가운데 땅에는 피를 심는 것이 알맞으며, 낮은 땅에는 벼를 심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벼는 물이 많은 진흙땅에 심는 것이 알맞는데도, 자네는 개울이 막혀 물을 댈 수 없는 메마른 언덕에 씨를 뿌렸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곡식이 잘 여물리가 있겠나?”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 추리하기

노인은 각각의 토질이 달라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각각의 토질에 맞게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노인의 충고에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각각의 여건, 환경에 맞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며 환경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다. ⑤ 젊은이가 실제 농사를 짓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탄식한 것이므로 말로 불평만 한 것은 아니다.

<2번> 다음은 삼촌과 조카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 카 : 삼촌! 무슨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삼 촌 : 어, 이건 '오위진법'이야. 조선 시대에 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진법을 그린 거지. 혹시 본 적 있지?

조 카 : 아뇨, 처음 봐요. 그런데 오위진법이 뭐예요?

삼 촌 : 응, 오위진법은 진후좌우에 배치된 부대가 중앙 사령부를 둘러싸는 형태의 진법이야. 상황이 따라 수시로 돌격과 후퇴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모든 병사들이 반복해서 훈련했지.

조 카 : 그렇군요. 그런데 삼촌! 지금은 무전기 같은 통신기기로 명령을 빨리 전달할 수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어땠나요?

삼 촌 : 어, 깃발을 이용했어. 깃발은 각 부대를 상징하는데, 사령부인 중앙군은 황룡기, 우위군은 백호기, 좌위군은 청룡기를 사용했지.

조 카 : 아~, '좌청룡, 우백호'가 적용됐네요.

삼 촌 : 그렇지. 그리고 전위군은 주작기, 후위군은

현무기를 사용했는데, 명령을 내릴 때에는 해당 하는 부대의 깃발을 움직였어. 만약 전위군을 적을 향해 돌격시키려면 주작기를 앞으로, 후퇴시키려면 뒤로 향하게 했던 거야.

조 카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투 중에 깃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삼 촌 : 그래서 악기인 북과 징, 각의 소리로도 명령을 함께 전달했단다.

조 카 : 어떻게요?

삼 촌 : 북을 치는 것은 적을 향해 돌격하라는 의미인데, 북을 빠르게 치면 돌격 속도를 높이라는 명령이고, 천천히 치면 늦추라는 것이지. 그리고 징을 치는 것은 정지하거나 후퇴하라는 의미인데, 한 번은 공격을 늦추고, 두 번은 진투를 중지하고, 세 번은 뒤로 돌아서고, 네 번은 후퇴하라는 거야.

조 카 : 그렇군요. 그럼 작은 언제 사용했어요?

삼 촌 : 응, 작은 깃발이나 북, 장을 사용하기 전에 병사들을 주목시킬 때 불었던단다. 그러니까 전위군을 빠르게 전진시키려면 먼저 작은 북을 울리고 주작기를 앞으로 향하게 하면서 북을 급하게 치면 되는 거지.

2.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명령 전달 방법 추론하기

삼촌의 세 번째, 네 번째 대사에서 우위군을 후퇴시키려면 우위군을 상징하는 깃발인 백호기를 뒤로 향하게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촌의 여섯 번째 대사에서 후퇴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징을 네 번 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촌의 마지막 대사에서 다른 명령 전달 방법에 앞서 작은 북을 불었다고 하였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작은 북을 울려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위군을 후퇴시킬 때 사용할 명령 전달 방법은 ㉠, ㉡, ㉢이 적절하다. ㉣ 삼촌의 네 번째 대사에서 현무기는 후위군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 삼촌의 여섯 번째 대사에서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은 적을 향해 빠르게 돌격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온 환자에게 사용하는 '저체온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처치 시기를 놓치면 심장 박동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설사 심장이 다시 뛰게 되더라도 멈췄던 피가 갑자기 흐르면 장기(臟器)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저체온 치료법'입니다.

치료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뇌 세포와 신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면서 피가 돌면 세포에는 갑자기 엄청난 압력의 혈류가 들어닥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장기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몸을 저체온 상태로 만들어 이를 유지하면 신체 조직의 갑작스런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체온 치료법의 원리는 저체온으로 세포와 조직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든 후에 몸의 상태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체온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된 환자에게 차가운 식염수를 주입하거나 '냉각관'을 삽입하여 환자의 체온을 32~34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에서 장기 손상 회복 치료를 한 후, 한 시간에 0.25도씩 환자의 체온을 서서히 올리면 환자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식이 과거 기억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손상을 일으킨 최근 기억을 만들고 활용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저장되는 뇌 부위는 늦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 과거 기억부터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3.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심장 마비 환자는 의식이 돌아올 때 과거 기억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뇌 손상을 일으킨 최근 기억을 만들고 활용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이다. ④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된 환자들은 피가 갑자기 돌면 세포에 엄청난 압력의 혈류가 들어닥치게 때문에 장기가 손상된다.

<4번~5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예, 방금 김 처장님께서서는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 찬성자(남) : 최근 대학의 실정을 살펴보면, 사회의 수요는 많은데도 정원이 부족한 학과가 있는가 하면, 수요는 적은데도 정원이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과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수요 때문에 학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 반대자(여) : 사회는 대학이 사회적 인력을 수요를 담당할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정 찬성자(남) : 서 교수님, 인기 없는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습니다. 대학도 경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학과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정돼야 합니다.

조정 반대자(여) : 아니요, 경제 논리만으로 학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 학문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왜 모르시니까?

사회자 :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십니다. 경제 논리로 학과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상반되는데요. 그러면 학과 조정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정 찬성자(남) :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취업이거든요. 따라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학과를 선호합니다. 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개설하고, 취업과 관련 없는 학과는 조정해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 반대자(여) : 글썽요, 학생들 관심이 취업이 잘 되는 일부 학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습디다. 대학은 학생들이 가진 여러 분야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를 유지하여,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률만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 주장의 근거 찾기

학과 조정을 반대하는 서 교수(조정반대자-여)는 첫 번째 발언에서 사회가 대학에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 학문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순수 학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토론 중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장을 펼치기 위해 활용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5. [출제의도]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발언을 이끌고 있다.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을 예로 들면, 사회자는 김 처장이 학과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정리한 후, 토론자에게 사회적 측면의 이유를 말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쓰 기]

6. [출제의도] 착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기상거리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합창곡을 선정할 때에는 공연을 관람하게 될 관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에서 도출할 수 있지만 제시된 메모에는 이와 같은 진술이 없다. ① '합창단원은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야 함'에서 도출할 수 있다. ② '합창단원은 서로 간에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어야 함'에서 도출할 수 있다. ③ '자신이 맡은 음역을 충실히 소화해야 함'에서 도출할 수 있다. ⑤ '지휘자는 곡을 해석하여 노래의 강약을 조절해야 함'에서 도출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교재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㉔은 녹색생활 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문단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생활'의 서술어가 생략되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생활을 실천하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이러한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는 첫 문장의 '안일한 생각으로 에너지를 낭용하는' 태도를 받는 말이다. 또한 이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이 운동을 앞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벌리다'는 '퍼다'의 의미이며 '벌이다'는 '행사나 운동을 펼치다'의 의미이므로 '벌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앞 문장에 이어 구체적 실천 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또한'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수도꼭지 잠그기와 냉방 온도 낮추기'라는 홈페이지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밝혔다. 또한 무생물인 지구를 '미소 짓고 울상 짓는' 존재로 표현한 의인화가 나타났고, '~면 지구가 미소 짓고 ~면 지구가 울상 짓죠.'에서 대구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① 대구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의인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대구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구법과 제시문의 실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1은 행정 용어가 어려워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의 인터뷰이고, (가)-2는 순화된 행정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 실무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터뷰이다. (나)-1은 행정 기관의 실무자가 행정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2는 행정 용어 개선의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다)는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가)-1과 (나)-2를 활용하여 행정 기관 실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행정 용어가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이끌어 낼 수 없다.

10. [출제의도] 개요 검토 및 수정하기

<보기>는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개요이다.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과 1:1 관계를 유지하며 무료로 학업을 도와주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봉사 활동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은 서로 간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활성화의 필요성의 하위 항목에 작성된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도움 제공'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

용이 아니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정 방안의 내용인 '교우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은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② III의 하위 항목의 내용은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과정'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하위 항목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III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IV 항목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내용으로 볼 때 상위 항목 '해결 방안'에는 적절하지 않고, II의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간 및 예산 지원' 등 급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정 방안은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 촉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제시된 단어의 의미 탐구하기

'대부분'은 '절반이 넘어 전체량의 거의 가까운 수효나 분량, 일반적인 경우'에의 의미이고, '대체로'는 '요점만 말해서, 전체로 보아서, 또는 일반적으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㉔의 '대부분'을 '요점만 말해서'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거의'는 사용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 앞에 쓰여 그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ㄴ의 '거의'는 주제인 소년의 심리가 '포기했다'의 의미에 가까운 짐을 나타내고 있다.

12. [출제의도] 용어의 활용형과 준말의 형태 및 특성 추론하기

'ㄱ'과 'ㄴ'의 활용형의 준말이 다른 것은 'ㄱ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ㄱ'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고, 'ㄴ은 '쉽습하지'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서 '하'의 앞 음절과 관련이 있다. ① 'ㄱ'의 경우 '흔하지'가 '흔치'로 주는 것은 '흔하지'의 어간에서 '하'의 'ㄱ'가 탈락하고, 'ㅎ'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치'가 되기 때문이다. ② 'ㄴ'의 경우 '쉽습하지'가 '쉽습치'로 주는 것은 어간의 '하'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③ 'ㄴ'의 경우 '이러하지'가 '이렇지'가 되는 것은 어간에서 '하'의 'ㄴ'이 탈락하고 남은 'ㅎ'이 앞 음절 끝소리에 붙었기 때문이다. ④ 'ㄷ'의 경우 '삼가지'의 준말이 없는 것은 원형이 '삼가지'로 어간에 원래부터 '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시]

[13~16] <출전> 이우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형기, 「산,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13. [출제의도] 작품들의 공통점 찾기

(가)의 '얼음길'은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나)의 '가을비'는 적막하고 신비로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는 시적 대상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④ (나)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 ⑤ (나)에는 '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산'의 모습을 보며 감상에 젖어있지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가)와 (다)에서는 구체적인 자연물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강 건너 벌판은 '바람이 이리처럼 날뛴' 곳이며 화자의 '젊은 빛이 '열어붙은 듯' 서 있는 곳'이므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일제 강점 하에서 조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인 화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물은 먼

면히 이어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물이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 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목마르고'와 '거칠다'는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는 이들, 즉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복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는 일제 강점 하에서 화자와 같이 국경을 넘어 타지로 떠나는 유이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비교하기

[A]에서는 의인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아아 그러나 지을 수 없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룡진 윤곽의 산을 보며 깊은 감상에 젖은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③ '하늘의 자리는 성성하게 푸르다.'에서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에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④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울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 등에서 상충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두운 내면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 '윤곽만을 드러낸 산'은 '비'에 젖어 뿌옇게 보이는 산으로 화자는 산의 진좌한 무게와 비에 젖어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는 신비스러운 모습에 지을 수 없는 감동을 느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② '격노의 기억'은 산의 지난 시절을 가리키며 '깎아지른 절벽', '오상한 바위'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식량 사정이 어려운 때'를 뜻하는 '보릿고개'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힘겹게 보냈던 지난 시절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④ '목탁새'는 '경신이 들 때마다 내 속에서 우짖는 새'로 화자의 내면 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새라고 할 수 있다. ⑤ '절벽'에 오르고 '천불산'을 받아들이면서 화자의 내면이 어둡고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 문]

[17~20] <출전> 조공호,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이들은 인간을 ~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설명으로 보아 인간의 존재 의미와 사회관계와 무관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이 덕을 사회생활에 실천하여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유학자들은 인간을 누구나 가르칠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여러 가지 사회 행위의 최종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즉 유학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이라고 본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자료에 대한 의문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독점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하는 것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 글의 '유학자'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학자'가 '자유주의 사상가'에게 제기했을 의문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과의 조화에 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은 아닌가요?'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① 개인을 각자를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본 것은 이 글의 '유학자'가 아니라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②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아니라 이 글의 '유학자'이다. ③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을 중시한 것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아니라 이 글의 '유학자'이

다. ④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한 것은 이 글의 '유학자'가 아니라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19. [출제의도]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3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군자의 모습은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의 다섯 번째 문장으로 보아, 군자가 소인 스스로 책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네 번째 문장으로 보아, 소인도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인', '의'의 핵심을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보아, '예'를 '인', '의'를 조절하고 꾸미는 도덕의 실천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능동적 주체자'의 입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유사한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을 포함한 문장은 유학자들이 인간을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뜻이므로, ㉠은 '대상을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쓰인 ㉡가 적절하다. ①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음식상이나 잡자리 따위를 제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 술]

[21~24] <출전> 쇠쇼해, 『아놀드 쇠베르크(Arnold Schönberg) 음악에 나타난 12음 기법과 무조주의 연구』

2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12음 기법의 발생 배경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음 기법의 작곡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사례가 대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전 문가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상의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 '구성한 후에는 배열된 음들의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 작품 안에서 12음 기법의 기본 음렬은 한 번 배열이 정해지면 상황에 따라 다시 설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12음 각각에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하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기본 음렬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 때 자신의 의도대로 처음 배열한 음렬을 말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기본 음렬을 구성할 때에는 중요한 음이나 중심이 되는 화음 없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쇠베르크의 12음 기법은 12음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기본 음렬에 이를 '전위', '역행',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세 가지 음렬을 더해 악곡을 창작하는 체계적인 작곡 기법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B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시킨 음렬이다. B는 출발점이 되는 첫째 음이 '솔#'으로 기본 음렬 A와 같고, 기본 음렬 A가 첫째 음 '솔#'에서 둘째 음 '도#'으로 5도 상승했을 때, B는 첫째 음 '솔#'에서 둘째 음 '레#'으로 5도 하강하는 음의 진행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B가 기본 음렬 A를 '전위'한 전위 음렬임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기본 음렬 A를 '역행'시킨 역행 음렬, D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시킨 뒤 다시 '역행'

시킨 역행 전위 음렬이다. 따라서 B와 C는 기본 음렬 A를 각각 한 번 파생시킨 음렬임을 알 수 있다. ① B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음렬이다. ② C는 기본 음렬 A를 '역행'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음렬이다. ③ D는 C와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음렬이다. ⑤ D는 B를 '역행'의 방법으로 한 번 파생시킨 음렬이나, C는 B와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음렬이다.

2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의 '주어야'의 문맥상 의미는 '사물에 자각이나 가치를 붙여 주어야'이다. 이는 '부여하다'의 의미인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 따위를 붙여 줌'과 의미가 통한다. 그러므로 '주어야'는 '부여해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현대소설]

[25~28] <출전> 전상국, 『외동』

25.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김광모가 박경사에게 말하는 것("물라도 좋아. 오히려 모르는 게 좋을 걸세. 오도민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등)으로 보아 자신의 정적인 이중철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경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서 "만들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은 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박경사와 오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② 부분적으로 독백적 어조로 박경사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박경사는 김광모에게 제안을 받고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이를 통해 과거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분적으로 독백적 어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26.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은 박경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려는 김광모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박경사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다. ㉡은 자신의 의도를 박경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에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 박경사 자신의 결정에 만족해하는 심리가 '희열'로 표현되어 있다. ㉣에는 박경사의 뜻밖한 태도에 대해 불쾌해하며 힐난하고 있는 오도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에는 끝내 봉투를 놓고 일어난 박경사의 태도를 비교는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2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및 소재와 관련된 사건의 의미 파악하기

㉡는 김광모가 박경사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넨 것이나 결국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므로 ㉡가 인물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 박경사는 ㉢을 오도민에게 전달하면서 김광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므로 ㉢을 전달하는 행위에는 박경사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박경사는 김광모의 제안을 받고 마음 한편에 어떤 기꺼움을 느끼는데 그 순간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린다. 그러나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웃는 얼굴이 보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는다. 따라서 박경사가 김광모에게 받은 봉투를 오도민을 통해 돌려주려고 마음먹은 데는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는 박경사를 회유하기 위한 김광모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에는 김광모의 제안을 거절하는 박경사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박경사는 의등을 향해 사정없이 부딪치다가 지쳐 떨어졌을 나방을 통해 격렬한 삶을 살았을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나방처럼 격렬한 삶을 감시라도 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는 나방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동경이자 연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그 나방처럼 사는 게 굵고 짙게 사는 걸까.'에서 박경사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의 삶이 곧 의등을 향하는 나방으로 드러나며, 또한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려는 박경사의 태도로 볼 때, 박경사는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나방'은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박경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때, '의등'은 아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⑤ 아버지가 일제 강점 하의 항일 투사 활동을 했다고 믿는 박경사의 태도로 볼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의등'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 학]

[29~32] <출전> 최해미 외, 『21세기 영양학』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마)의 세 번째 문장에서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것은 불포화지방산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의 두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나)의 여섯 번째 문장, (다)의 여섯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A와 B는 포화지방산 분자와 관련된 그림이며, C와 D는 불포화지방산 분자와 관련된 그림이다. A는 포화지방산의 탄소 단일 결합 상태를, C는 불포화지방산의 탄소 이중 결합 상태를 보여준다. B는 포화지방산 분자 2개가 결합하는 모습을, D는 불포화지방산 분자 2개가 결합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이중 결합 때문에 나타난 것이므로 단일 결합 때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① A의 탄소 단일 결합 부분은 C의 탄소 이중 결합 부분과 비교할 때, 수소가 탄소 당 하나씩 더 결합하므로 A에는 수소가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B의 포화지방산 분자들은 일렬의 형태로 분자들끼리 단단하게 결합하므로 녹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③ B의 포화지방산 분자들은 D의 불포화지방산 분자보다 결합이 단단하므로 녹는점이 높다. ④ C의 결합으로 분자에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 불포화지방산 분자들이 D에서처럼 상대적으로 멀리 있게 되어 분자 간 인력이 낮아진다.

31. [출제의도] 내용에 따른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코코넛 유는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으로 빈번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관 내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코넛 유가 많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면 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이 성분이 뇌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다. ④ 들기름의 불포화지방은 피부세포막 형성에 작용하여 노폐물을 배설하고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올리브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뇌와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리브기름을 섭취하면 노화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쇠퇴를 늦출 수 있다.

3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㉔ 버터’는 ‘㉕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다. 따라서 ㉔ : ㉕은 ‘㉕을 함유한 ㉔’이라는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쌍이다. ‘두부 : 단백질’은 ‘단백질’을 함유한 ‘두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 관계를 갖고 있다. ① 유의 관계 ② 부분과 전체의 관계 ④ 동의 관계 ⑤ 반의 관계이다.

[시가 수필 복합]

[33~37] <출전> 박인로, 「자경(自警)」 이이, 「낙지가(樂志歌)」 주세붕, 「의아기(義鷄記)」

33. [출제의도] 세 작품의 공통점 찾기

(가)의 화자는 ‘명덕(明德)’을 닦는 삶의 태도를, (나)의 화자는 ‘은거행의(隱居行義)’와 ‘요순지도(堯舜之道)’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다)의 글쓴이는 의(義)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③ (가)~(다) 모두 갈등 극복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유희자적 하는 삶은 (나)에만 나타난다.

34.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와 기능 비교하기

㉑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명덕(明德)’을 추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공간이고, ㉒은 화자가 ‘길 잃은 행인’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 만든 ‘제세주’를 버리는 공간이다. ㉓은 화자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속세(俗世)로, 멀리하고자 하는 공간이고, ㉔은 화자가 현재 머물면서 자연과 함께 유희자적(悠遊自適)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㉑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고, ㉒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다. ① ㉑은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해소되는 공간이 아니다. ② ㉓은 화자가 만족하고 있는 공간으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㉔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⑤ ㉑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㉔은 화자가 현재 이미 머물고 있는 공간이므로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시어를 연관 지어 감상하기

‘모르도다, 아닌 게오’는 ‘명덕(明德)’을 닦으려 하지 않는 세태와 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버렸도다’는 ‘길 잃은 행인’을 구하기 위해 만든 ‘제세주’를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시어에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는 드러나지만 현실적 삶에 열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나)의 화자는 속세를 탐욕과 욕심, 시비하는 다툼이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속세에서 벗어나 세상사를 잊고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나)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① ‘뜬 구름’, ‘새’ 등을 통해 시비 없이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공명이 무엇이 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여년(餘年)이 얼마련고, 이 아니 즐거운가.’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에서 고사(故事)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등에서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세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7. [출제의도] 전개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B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고 있지 않으며, C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 ① 가락리 집에서의 ‘나’의 체험은 직접체험이다. A에 나타난 누님의 죽음에 따른 거위의 신의 있는 행동은 소문만 듣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이지만, C에 나타난 거위 한 마리가 죽고 난 후의 남은 거위의 신의 있는 행동은 직접 확인한 것이다. ③ A~C에서 D로 글이 전개되면서

‘나’의 사고는 거위의 행동에 대한 생각에서 인간 세태에 대한 생각으로 확대된다. ④ D에서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친구에게 의로운 거위를 보며 그렇지 못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⑤ E에서 ‘나’는 D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돌려서 거위와 같은 신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 타인과 자신이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이 글을 쓴다는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인 어]

[38~40] <출전> 윤영현, 「국어의미론」

38. [출제의도] 글의 논지와 부합된 언어의 특성 추론하기

이 글은 기준에 있던 명칭(단어)을 활용해 개념이나 의미를 비유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①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②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③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④ 언어의 본질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3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정보 이해하기

‘햇병아리’(n1)는 이미 존재하는 명칭 ‘꽃내기’(n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지, 새롭게 명칭 ‘꽃내기’(n2)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① ‘햇병아리’와 ‘꽃내기’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명칭으로 유의 관계에 있다. ② ‘경험이 없는 사람’을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비유했다. ③ ‘새로 부화된 병아리’와 ‘경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무경험자’라는 공통된 의미 자질이 있다. ④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의미를 기존의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더하면서 명칭 ‘햇병아리’는 다의어가 된다.

40. [출제의도] 글의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ㄱ부터 ㄴ까지의 명칭 변이는 공간적, 시간적,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ㄱ은 아침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ㄴ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ㄷ은 두렵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ㄹ은 1960년 4월 19일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ㄹ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사 회]

[41~43] <출전>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4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가로축은 X재의 양을, 세로축은 Y재의 양을 표시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상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분은 4문단에서 예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① 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무차별곡선은 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무차별곡선의 상품조합에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들어가 있다. ③ 4문단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예산선과 만족이 높은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예산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⑤ 4문단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 정도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42.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상품 교환을 할 때 상품의 보유량에 따라 상품의 수가 많을 때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많이 내놓고, 상품의 수가 적을 때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 적게 내놓게 된다. 따라서 한

계 대체율이 작아지는 것은 줄어드는 연필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그만큼 연필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볼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볼펜의 상대적 중요도는 줄어든다. ② 한계대체율은 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X재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감소하는 Y재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무차별곡선 안에서 만족감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의 크기와 상관없다. ③ <보기>의 볼펜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연필의 개수는 8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한계대체율은 3이 된다. 이 경우 볼펜의 개수보다 연필의 개수가 많다. [A]를 보면 X재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은 감소하므로 한계대체율이 3보다 크다는 것은 X재인 볼펜의 개수가 3개보다 적어질 때이므로 동일한 연필의 개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한계대체율이 3보다 커지게 되면 볼펜의 개수보다 연필의 개수가 더 많다. ⑤ <보기>와 [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X재가 증가할수록 한계대체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4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사과 9개와 배 3개, 사과 1개와 배 9개는 모두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만족도는 같다. ① 예산선과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인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이 최적 선택이다. ③ 사과 5개와 배 10개, 사과 7개와 배 7개는 모두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만족도가 같다. ④ 위치가 다른 여러 무차별곡선에서 원점과 멀어질수록 만족도는 커진다. 사과 5개와 배 6개보다 사과 7개와 배 7개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만족도가 크다. ⑤ 사과 9개와 배 3개보다 사과 5개와 배 10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의 점이므로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9개와 배 3개를 살 때 만족도가 작다.

[고전소설]

[44~47] <출전> 작자 미상, 「장풍운전」

4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이 부인’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까지 시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취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추 수가 있랴.’에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고 있다. ④ 장풍운이 하복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부분, ‘이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부분, 장풍운이 ‘이 부인’을 구하는 부분 등으로의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⑤ 장풍운의 꿈에 금사부자가 나타나 ‘이 부인’의 상황을 장풍운에게 알리고 있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㉑에서 ‘왕 부인’은 장풍운이 돌아오면 울고 그림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미래에 대한 인물의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㉒에서 ‘이 부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길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인물의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㉑과 ㉒ 모두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② ㉑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㉒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㉑과 ㉒ 모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은 없다.

46.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사건 파악하기

장풍운이 본가에 돌아와 형구를 차려주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고 할 때, 한 대도 때리지 전에 난항 등이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므로, 모진 형벌을 가해 난항의 자백을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7.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유씨는 ‘이 부인’을 모해하였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벌을 받게 되므로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의 뜻을 가진 ‘자언자득(自業自得)’이 가장 적절하다. ①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살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기 술]

[48~50] <출전> 김병철 외, 『TCP/IP 프로토콜』

48. [출제의도] 글의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1문단에서 프로토콜의 개념을 제시한 후, 통신의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적용되기 위한 논리적 구조인 OSI 7계층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문단에서 3문단까지의 내용은 OSI 7계층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 단계별 기능을 송신자가 보낸 정보를 수신자가 받는 과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OSI 7계층 모델의 각 단계가 프로토콜로 연계되어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 프로토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49.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OSI 7계층 중, 1단계는 물리 계층으로서 정보를 보내기 위한 케이블의 종류나 전기 신호 등의 기계적 조건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보기>의 G는 이와 같은 1단계를 의미하므로 검사점을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한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검사점을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단계는 5단계인 세션 계층이다.

50. [출제의도] 독자의 반응 추리하기

<보기>의 C는 5단계로 세션 단계이며 송신자의 입장에서 수신자의 인터넷 주소가 입력되는 것은 4단계이다. 그런데 송신자의 정보의 흐름은 5단계에서 4단계, 3단계 등의 순으로 이어지므로 C단계는 아직 수신자의 인터넷 주소가 입력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B는 6단계인 표현 계층으로서 송신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압축하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압축을 푸는 단계이므로 타당하다. ③ H는 송신자의 4단계인 D단계에서 추가한 프로토콜이다. 4문단에 따르면 각 계층에서는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추가된 프로토콜 H는 수신자의 4단계인 D에서 해석된 후 삭제되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각 단계는 동일한 프로토콜로 송수신한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⑤ 1~4단계는 하위 계층으로서 물리적 단계에 속한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